

2021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제 4 교시

성명

수험 번호

2

제 [] 선택

1

1. ⑦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해 주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도덕적 추론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엔 이러한 주장은 윤리학이 ⑦는 점을 간파하고 있다.

- ① 도덕 관습의 발생에 대해 인과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 ② 보편적 도덕 원리를 현실의 개별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 ③ 도덕적 추론 과정의 논리적인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 ④ 각 사회의 도덕 규칙을 가치 중립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 ⑤ 도덕적 지식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해 탐구해야 한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사회는 이타심보다 정의를 도덕적 이상으로 삼는다. 사회는 이타심이 높은 사람들로부터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 만약 집단의 이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면 이는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 견제될 수 있다. 이러한 견제는 도덕적이거나 합리적 설득 외에 강제력에 의한 방법이 병행되어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 ① 개인의 이타심은 사회의 도덕적 이상 실현에 기여한다.
- ②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정치적 제재의 사용이 필요하다.
- ③ 집단 간의 힘의 불균형은 사회 부정의로 이어질 수 있다.
- ④ 사회 부정의 해소를 위해 집단의 이기심을 이용할 수 있다.
- ⑤ 집단의 이기심은 집단 구성원들의 도덕성 함양만으로 억제된다.

2.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본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 개인 정보가 인터넷상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힐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다만 인터넷상에서 공익과 관련된 개인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잊힐 권리보다 알 권리의 보장을 우선해야 합니다.
 갑: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과 관련된 개인 정보라도 잊힐 권리의 보장을 우선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보가 누구에게 어디까지 공개될지 결정하는 주체는 그 자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을: 아닙니다. 정보 주체인 개인의 권리는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익과 관련된 개인 정보라면 구성원들에게 공개되어야 알 권리가 보장되고 사회의 이익이 증진될 것입니다.

- ① 알 권리의 보장을 위해 잊힐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가?
- ② 개인 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잊힐 권리의 보장이 필요한가?
- ③ 인터넷상의 정보는 어떤 경우라도 삭제되어서는 안 되는가?
- ④ 개인의 모든 정보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하는가?
- ⑤ 공익과 관련된 개인 정보에만 잊힐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가?

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공동체의 정의감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입헌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인 시민 불복종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폭력 행위와 양립할 수 없다.

- ①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변혁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모든 부정의한 법과 제도이다.
- ③ 시민 불복종은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위법 행위이다.
- ④ 시민 불복종은 개인이 지닌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야 한다.
- ⑤ 시민 불복종은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는 비공개적 행위이다.

5. 그림의 강연자가 궁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화 산업은 여가 시간에서 조차 소비를 활발하게 만드는 경제 메커니즘의 일환입니다. 소비자들은 문화 산업이 소비자들을 겨냥해 대량으로 제조한 생산물을 선택하게 되고, 소비자들의 여가 시간은 문화 산업이 제공하는 동일한 생산물로 채워집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자발성과 상상력이 위축되고 사유 능력을 상실한 인간이 양산(量産)됩니다.



- ① 문화 산업은 소비자들의 비판 능력을 향상시키는가?
- ② 문화 산업은 소비자들을 문화의 생산 주체로 보는가?
- ③ 문화 산업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가?
- ④ 문화 산업의 생산물은 획일화된 대량 생산 체계의 산물인가?
- ⑤ 문화 산업의 생산물은 소비자들에게 고유한 체험을 제공하는가?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6.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상황에서 개인들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다. 원초적 상황의 개인들은 최소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는 원칙에 합의한다.</p> <p>을: 정의란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재화의 최초 취득, 이전의 과정이 정당하면 현재의 소유 권리는 정당하다.</p>
(나)	<p>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p> <p>A</p> <p>아니요</p> <p>예</p> <p>B</p> <p>예</p> <p>C</p> <p>예</p> <p>갑의 입장</p> <p>을의 입장</p> <p><범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

→ 보기 ←

- ㄱ. A: 분배 절차의 공정성은 결과의 정당성을 보장하는가?
 - ㄴ. B: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정책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ㄷ. B: 원초적 상황의 개인은 타인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갖는가?
 - ㄹ. C: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최소 국가는 정당한가?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모든 사랑에는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이라는 공통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보호’는 사랑하는 사람의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며, ‘책임’은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 응답할 준비가 된 나의 반응을 뜻한다. 또한 ‘존경’은 차취 없이 상대방이 그의 방식대로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며, ‘지식’은 상대방과 나에 대해 객관적으로 아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보호, 책임, 존경, 지식은 오직 생산적 활동으로 획득되는 사랑의 본질적 태도이다.

〈보기〉

- ㄱ. 사랑은 상대방이 지닌 개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 ㄴ. 사랑은 상대방의 요구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이다.
 - ㄷ. 사랑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완성된다.
 - ㄹ.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태도가 사랑의 본질을 왜곡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개인의 행위가 도덕적 가치를 지니려면 그 행위는 반드시 의무로부터 행해져야 한다. 의무로부터의 행위는 그 행위의 결과와 관계없이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한다.

을: 개인이 추구해야 하는 선(善)은 전통의 맥락 안에서 정의된다.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성질로, 덕을 소유하고 실행하면 전통의 관행에 내재한 선을 성취할 수 있다.

- ① 갑: 도덕 법칙의 명령을 예외 없이 따라야 한다.
 - ② 갑: 유용성을 산출하는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 ③ 을: 행위자의 품성보다 행위 그 자체를 중시해야 한다.
 - ④ 을: 공동체의 역사와 무관한 보편적 선을 실천해야 한다.
 - ⑤ 갑, 을: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할 때 동기와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선왕(先王)은 예의를 제정하여 백성들을 구분 짓고 욕구를 조절하게 하였다. 농부는 김매고 밭 가는 일을, 공인(工人)은 깎고 다듬는 일을, 사대부는 정사(政事)를 담당하다.

을: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종사해야 한다.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사이의 친밀은 국가에 대한 최대의 해악이며 통치자는 공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 보 기 〉

- ㄱ. 갑: 개인의 덕과 능력을 고려해 사회적 직분을 정해야 한다.
 - ㄴ. 을: 정의 실현을 위해 통치자의 사유 재산을 금지해야 한다.
 - ㄷ. 을: 계층 간 역할 교환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중대시켜야 한다.
 - ㄹ. 갑, 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사회적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 | | |
|-----------|-----------|
| ① ㄱ, ㄷ | ② ㄱ, ㄹ |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통 윤리학에서 인간의 책임의 대상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인류 자신이었다. 그러나 기술의 영향력이 모든 존재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확대되면서 인간의 책임 역시 지구 생명의 미래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동료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해 고려하고 미리 사유된 위험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새로운 윤리인 책임 윤리가 요구된다.

- ① 기술이 인간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 윤리적 성찰이 필요한가?
 - ② 새로운 윤리는 희망보다 공포를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
 - ③ 인류의 존속을 위해 인간과 자연은 호혜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 ④ 기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인간의 책임 범위가 넓어져야 하는가?
 - ⑤ 저토 윤리마으로는 기술 발전으로 발생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가?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3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국가는 모든 공동체의 종착역이며 가장 높은 단계이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를 구성하는 존재이며,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형성되었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한다.
을: 군주가 의로움이 아닌 이로움을 앞세우면 국가가 위태로워지지만, 인정(仁政)을 베풀면 백성은 윗사람을 친애하게 된다. 인정의 근본은 백성에게 항산(恒産)을 보장해 항심(恒心)을 갖게 하는 것이다.

- ① 갑: 국가는 모든 공동체를 포함하는 최고의 도덕 공동체이다.
- ② 갑: 국가는 인간의 생명 보존을 위해 형성된 계약의 산물이다.
- ③ 을: 군주는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을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
- ④ 을: 군주는 백성의 생업을 보장하여 백성을 교화시켜야 한다.
- ⑤ 갑, 을: 국가는 사회 구성원들을 선한 삶으로 이끌어야 한다.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죽음이란 현존재가 스스로 떠맡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것은 언제나 본질적으로 나의 것이다. 현존재는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자신의 실존을 깨달을 수 있다.
을: 죽음이란 순수한 인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육체라는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육체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영혼만을 사용하여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

- <보기>
- ㄱ. 갑: 자신의 죽음을 자각하여 주체적 삶을 살아야 한다.
 - ㄴ. 갑: 죽음에 대한 불안을 수용하여 실존을 회복해야 한다.
 - ㄷ. 을: 죽음은 영혼이 참된 실재에 도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ㄹ. 갑, 을: 죽음 이후에야 인간은 자신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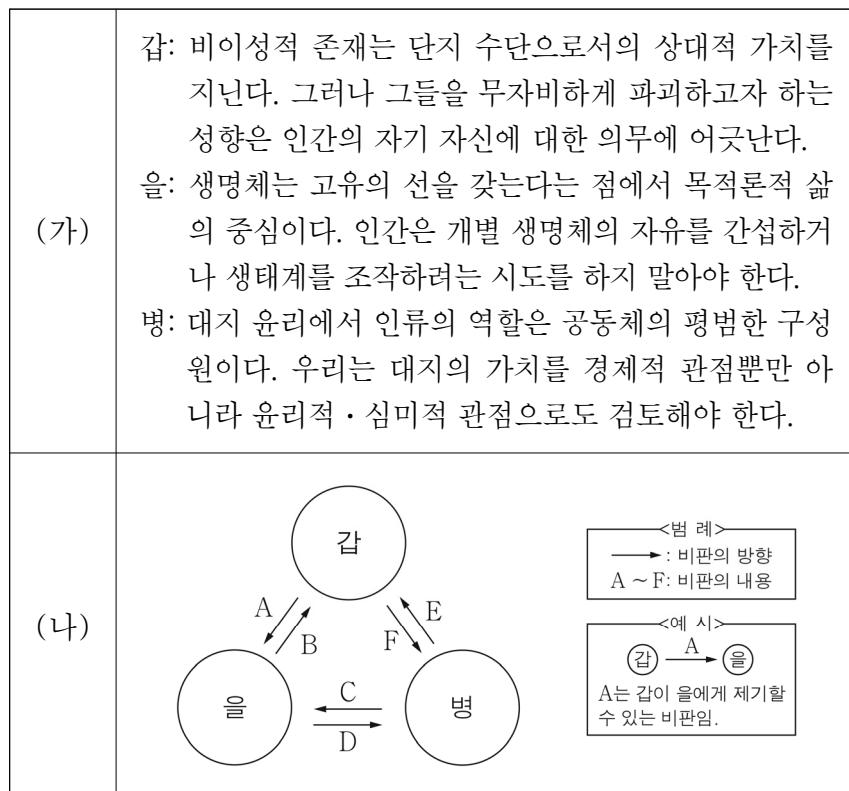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1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음악을 비난하는 원인은 악기 소리가 즐겁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다. 귀는 즐거운 것을 알지만, 위로 헤아려 볼 때 성왕(聖王)의 일과 부합되지 않고, 아래로 헤아려 볼 때 백성들의 이로움과 부합되지 않는다.
을: 음악은 백성들을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방편이고, 악기는 백성들을 덕으로 인도하는 방편이다. 음악이 바르게 연주되면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향하게 되고, 성인(聖人)이 예와 음악으로 이끌면 백성들이 화목하게 된다.

- ① 갑은 음악이 즐거운 감정을 가져다주므로 유용하다고 본다.
- ② 을은 음악이 사회 구성원들 간의 화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 ③ 갑은 을과 달리 모든 사람이 음악을 적극적으로 즐겨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갑과 달리 음악을 통해 덕성을 함양할 수 없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음악이 올바른 통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본다.

14.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F: 이성적 존재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임을 간과한다.
- ② B: 도덕적 지위를 가진 존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③ C, E: 생명 공동체 그 자체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임을 간과한다.
- ④ D: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님을 간과한다.
- ⑤ E: 동물을 자원으로 여기는 모든 행위를 금지해야 함을 간과한다.

15.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기존 문화와 이주민 문화의 공존을 위해서는 기존 문화가 주된 역할을, 이주민 문화가 부수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존 문화가 중심적 역할을 하며 이주민 문화와 조화를 추구할 때 사회 안정과 더불어 문화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사회의 문화를 주된 역할과 부수적 역할을 하는 문화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간의 평등한 관계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기존 문화와 이주민 문화가 대등한 입장에서 조화를 추구할 때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 <보기>
- ㄱ. 갑: 이주민 문화를 부정하고 기존 문화에 편입시켜야 한다.
 - ㄴ. 을: 한 사회에는 단일한 문화 정체성이 존재해야 한다.
 - ㄷ. 을: 기존 문화와 이주민 문화의 위계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
 - ㄹ. 갑, 을: 이주민 문화를 존중하는 것은 사회 결속에 기여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4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형벌의 목적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이다. 형벌은 인간 정신에 지속적 인상을 만들어 내는 동시에 수형자 신체에 가장 적은 고통을 주어야 한다. 수형자에게 지속적 고통을 주는 종신 노역형이 사형보다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을: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형벌의 양과 질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공적 정의가 원리와 표준으로 삼는 것은 동등성의 원리이다. 살인을 명령했거나, 살인에 참여했던 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 ① 갑: 종신 노역형보다 사형이 최대 행복의 실현에 기여한다.
- ② 갑: 지속적 인상을 남기는 형벌은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다.
- ③ 을: 형벌의 양은 응보법, 형벌의 질은 공리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 ④ 을: 형벌은 사회적 선을 증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 ⑤ 갑, 을: 형벌은 정의의 근거가 되는 원리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17.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배아는 성인과 동등한 인간 생명이 아니므로 난치병 치료를 위한 배아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배아는 인간 생명이 될 가능성을 지니므로 배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을: 배아는 잠재적인 인간 생명이므로 배아 연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난치병 치료를 위해서건 다른 목적을 위해서건, 배아 연구는 인간 생명을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기>

- ㄱ. 갑: 치료 목적을 위해 배아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ㄴ. 을: 배아 연구는 인간 생명을 수단으로 대하는 행위이다.
- ㄷ. 갑, 을: 인간 생명인 배아를 성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 ㄹ. 갑, 을: 효용성을 고려해 배아 연구의 허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8.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세상의 모든 존재는 불변의 독자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인(因)과 연(緣)의 상호 관계에 의하여 끊임없이 생멸(生滅)한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깨달아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해탈에 이를 수 있다.
(나) 무릇 나에게 있는 사단(四端)을 넓힐 줄 알면, 불이 타오르는 것과 같이 처음에는 미미하지만 끝에 가서는 기세가 대단할 것이다. 사단을 제대로 넓힌다면 천하를 보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부모조차도 섬기지 못할 것이다.

- ① (가): 연기(緣起)의 법칙을 깨달아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
- ② (가): 무명(無明)을 바탕으로 고정된 실체를 발견해야 한다.
- ③ (나): 예법을 바탕으로 자신의 모든 욕망을 제거해야 한다.
- ④ (나): 인위적 규범을 버리고 무위(無爲)의 도를 따라야 한다.
- ⑤ (가), (나):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해 분별적 지식을 버려야 한다.

1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종교적 인간에게 세계는 항상 종교적 의미로 충만해 있다. 이들은 세계를 신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보고, 세계 내의 자연물은 항상 그것을 초월하는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세속적 인간은 세계를 초월한 모든 것을 거부하며 거룩한 실재의 존재를 의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 인간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해도 여전히 종교적으로 행동한다.

<보기>

- ㄱ. 종교적 인간은 거룩한 실재의 존재를 부정한다.
- ㄴ. 종교적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성스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 ㄷ. 종교적 인간은 자연물 그 자체를 성스러운 존재로 숭배한다.
- ㄹ. 세속적 인간은 일상적 행위에 담긴 종교적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칼럼

0000년 0월 0일

예로부터 의복은 신체를 보호하고, 예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유행에 따라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에 유행을 따르려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저렴한 가격과 짧은 제품 수명을 특징으로 하는 패스트 패션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패스트 패션을 통해 유행만을 따르려다 보니 사람들이 무절제하게 의복을 소비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쉽게 버려지는 의복으로 인해 쓰레기와 탄소 배출량이 늘면서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소비자는 유행만을 좇으려는 의복 소비 행태를 지양하고, 의복의 본래 기능과 더불어 생태계까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 ① 유행을 따르기 위해 많은 의복을 소비해야 한다.
- ②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의복을 소비해야 한다.
- ③ 의복 소비와 윤리적 실천은 별개임을 깨달아야 한다.
- ④ 의복을 소비할 때 환경을 고려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 ⑤ 의복 소비는 공동체와 무관한 사적 행동임을 알아야 한다.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